



(인삼해가림 시설, 피복재)



(인삼해가림 시설, 차광망)

### 그림 8. 인삼 재배 해가림시설의 피복재

#### (2) 작업단계별 인삼재배 기계화 현황

중국의 인삼재배는 거의 모든 작업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삼을 재배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임야를 개간한 급경사지로 경사가 30°에 달하여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가) 인삼재배 이랑 조성

산림을 개간하여 인삼밭을 조성하는 경우 먼저 예정지의 나무를 벌목해 낸 다음에 불을 놓아 태우고 궤도형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큰 나무 뿌리를 발근하고 땅을 고른 후 팽이 등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쇄토 정지하고 상하 방향으로 이랑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강시에서는 비교적 평지에서 재배하였는데도 모든 작업은 인력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병충해 방제 작업은 인력 배부식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임강시의 평지에서 이랑을 만드는 경우 100m의 이랑을 만드는데 약 30명이 8시간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으며 하루 임금은 150위안 정도 였다. 그러나 무송의 만량 시장인 근에서 트랙터 부착용 로타리와 치즐플라우 및 인삼 수확기와 로타리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평지 재배에서는 대형 농기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 부착형의 경운 작업기인 로타리는 중앙구동식으로 폭이 2.4m 였으며 치즐플라우는 5련 견인형으로 폭은 180cm 였다. 임하삼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운, 정지 및 이랑만드는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며 산에 잡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곳에 구멍을 파고 파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파종, 이식작업

인삼의 파종은 두둑의 단변 방향으로 깊이 5cm 정도의 골을 파고 개갑한 인삼종자나 개갑하지 않은 인삼종자를 인력으로 줄뿌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에서는 구멍을 뚫어 점파하는 곳도 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직파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이식은 묘상에서 1년 정도 자란 묘삼을 인력으로 심어주고 있었다. 임하삼의 경우는 곡괭이나 나무 꼬챙이 등을 사용하여 직경 2cm, 깊이 5~7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그속에 2~3립의 인삼종자를 파종하고 흙으로 복토하고 진압한 뒤 낙엽 등으로 덮어주고 있었다.